

# SK에너지, 중국에 그린폴 협력 제안

녹색포럼, CO2 원료 폴리머·플라스틱 ... 중국은 신·재생에너지 투자 요청

SK에너지가 중국에 바이오 폴리머, 바이오 연료 등 바이오 화학 협력을 제안했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5월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제2회 한국-중국 녹색경제협력포럼에서 양국이 신·재생 에너지 기술 표준의 공동개발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.

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“양국이 신·재생 에너지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한편,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제3시장으로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손경식 상의 회장은 “양국은 이미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2-3%를 투자하는 등 녹색성장 부문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다”며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조중래 SK에너지 상무는 중국과 그린폴(Green Pol: 이산화탄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폴리머·플라스틱 제조기술), 바이오 연료 등에서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제안했다.

중국 참가자들은 태양광 등 신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28>